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요인 - 미혼 취업자 1982~1992년생을 중심으로 -

이유리* · 이성훈**¹⁾ · 박은정***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겸임교수* ·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건강가정건설팀연구소 연구위원***

The determinants of 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of the echo boomer generation : Focusing on the unmarried employed born between 1982 and 1992

Lee, Yu Ri* · Lee, Sung Hoon**¹⁾ · Park, Eun Jung***

*Adjunct Professor,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Hongi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Healthy Family Consulting****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of the unmarried employed of the echo boomers born between 1982–1992, using data from the 19th wave of the nationwid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courtship,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of the echo boomer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psychosocial variables, workplace related variables were examin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social variables. However, among the workplace related variables, other than childbirth and parenting within the job satisfaction category, all other variabl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ddition, as the determining factors affecting all issues of courtship,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youth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reveal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llowed by soci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1) 교신저자: Lee, Sung Hoon, 22 Samdeok-ro, 37 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Any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31-467-0936, Fax: 031-463-1386, E-mail: shlee@anyang.ac.kr.

2) 본 논문은 2017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구두발표본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Key words: 에코세대(echo boomer generation),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confidence in childbirth and parenting)

I. 서론

한국의 사회동향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78.0%, 베이비붐 세대의 66.2%에서 에코세대의 49.8%로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서 급속도로 하향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즉 에코세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절반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에코세대들은 연애 및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세대로 불린다. 여기에 인간관계와 주택마련 포기를 더해 오프, 꿈과 희망 포기를 더해 칠포, 외모와 건강 포기까지 더해 구포세대로 까지 불리면서 전사회적으로 우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에코세대는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에게서 태어난 1979~1992년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베이비부머는 695만 명인데 반해 에코세대는 954만 명으로(Statistics Korea, 2012) 2017년 현재 연령은 만 25~38세에 해당한다. 이들은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가 일군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유년기를 지냈지만 현재 학력인플레이와 취업난, 생활고, 결혼지연과 부적응을 경험하며 힘든 청년기 시절을 보내고 있다(Dong-A Ilbo, 2012. 8. 3). 특히 현재 결혼적령기 및 출산가임기에 속하는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포기는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결혼의식 및 가치관, 결혼의향과 만혼화 현상, 결혼생활준비교육과 준비도, 재무상태 및 관리능력, 라이프스타일,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Chin & Chung, 2010; Fischer, 2015; Han, 2014; Im, 2013; Ko, 2017; Koropeckyi-Cox et al., 2015; Lee & Lee, 2015; Moon, 2012)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중 결혼가치관 및 결혼의향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 에코세대의 결혼관은 만혼화와 비혼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Lee, Lee, Park, & Lee, 2017), 이는 저출산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또한 관련변인으로는 대부분 성별, 연령,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여부, 정규직 여부 등의 직장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최근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모두 증가하여 출산(전후)휴가제는 2013년 78.8%에서 2015년 80.7%로, 육아휴직제는 72.0%(2013년)에서 77.3%(2015년)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의 도입률도 출산휴가가 67.4%(2014년)에서 80.2%(2016년)로, 육아휴직제도는 41.2%(2014년)에서 58.3%(2016년)로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6a). 반면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Statistics Korea, 2016b)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으로 증가하였고, 세대 간 계층 이동가능성(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황 이동가능성)에 대해 10명 중 5명이 비관적이며, 특히 결혼 및 출산 결정 연령대인 30대는 2006년 10명 중 3명이 비관적이었으나 2015년에는 10명 중 6명이 비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장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한국사회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즉 기존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에코세대의 결혼가치관에 대해 살펴보던 것에서 가족친화제도를 포함한 직장관련 변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변인 등의 다각적인 측면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에코세대의 화두는 연애나 결혼보다 취업과 경제활동이며, 취업이 되더라도 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Lee, 2013). 따라서 취업한 미혼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사회적 변인, 직장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정책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가치로운 작업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와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미혼의 취업한 1982~1992년생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심리사회적, 직장관련

변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방산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게 출생연도를 에코세대로 한정하지 않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미혼남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결혼의향 및 결혼지연 등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사회적 변인(부정적 자존감, 사회적지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 직장관련 변인(정규직 여부, 출산 전후휴가 제공 여부, 육아휴직 제공 여부,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을 고찰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Barnett et al., 2003; Chin & Chung, 2010; Choi et al., 2016; Eun, 2005; Kirrane & Monks, 2008; Koh & Auh, 2013; S. Lee, 2005; S. Lee, 2005),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hoi et al.(2016), S. Lee(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Chin과 Chung(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았으며(Chin & Chung, 2010),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줄어드는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Kim, 2006; Kim, 2013; Moon, 2012). Koh와 Auh(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30~34세)은 결혼의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30대 후반(35~39세)은 결혼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는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과(Chin & Chung, 2010; Choi et al., 2016)가 있으나 S. Lee(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학력은 결혼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학력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또한 Kim(2015)은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결혼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Moon(2012)은 여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30대 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Koh & Aun, 2013)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결혼의향이 낮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심리사회적 변인

에코세대는 시대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취업, 결혼 등에서 성취와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Lynne, 2010, as cited in Son, 2015). 하지만 역설적으로 취업과 결혼의 가능성에 대한 좌절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에코세대에게 더욱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위기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on, 2015).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Lee, 2015)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부정적 자아상이 확립되고,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져 사회관계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 사회적 위축, 자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Chung, Jang, & Ju, 2015; Park, 2009). 특히 에코 세대는 반복되는 취업실패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약화되고,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자존감은(Son, 2015, 2017) 미래의 불안과 자신감 결여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애 및 결혼, 출산에 대한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미혼남녀의 연애 및 결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ark(2016)의 연구에서 20~30대 미혼남녀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 추구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남녀 대상은 아니지만 중년기 기혼남녀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기존결과(Park, 2015)에서 사회적 지지는 결혼 관련 변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Choi와 Park(2017)은 사회에서 노력에 의한 성공기회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에코세대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취업난과 비정규직, 임시직에 고통 받고 있는 에코세대가 현재 상황 속에서도 우리사회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Song과 Park(2017)은 에코세대의 가족관계 원만함, 이웃관계 원만함, 목표 달성 가능성 유무, 계층인식, 계층상승 가능성 유무, 소속감 유무,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람에 대한 신뢰감 유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유무, 사회의 안정성 유무, 자존감 및 의사소통 정도 등의 사회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의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청년인식이 이들의 결혼 및 출산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이와 같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이 취업한 에코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출산정책의 방안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3. 직장관련 변인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은 결혼지연 및 저출산 문제와 관련성이 있으며(Eun, 2005),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경제적 기반 마련은 결혼의향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i et al., 2016). 직업적인 요인으로서 취업여부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5; Koh & Auh,

2013). Kim(2015)은 남성 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1.65배 높아지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1.60배 높아진다고 하였다. 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Koh & Auh, 2013)에서는 30대 남성의 비취업자의 결혼의향이 취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고, 미혼여성의 고소득은 독신생활을 지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가족친화제도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Greenhaus & Allen, 2011; Kim & Ryu, 2016; Lee & Kim, 2012; Lim & Jeong, 2015; Tan-Wilson & Stamp, 2015) 에코세대의 결혼의향 및 자신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im & Sun, 2011). 가족친화정책은 여성친화정책과 더불어 출산력 회복과 성평등 및 여성의 취업이 보장되는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의 성공적 연계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Casper, Weltman & Kwesiga, 2007; Clark et al., 2017; Kim & Li, 2015; Wong et al., 2011). 이는 에코세대의 향후 출산에 대한 자신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ee와 Kim(2012)은 대부분 대학생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낮았지만, 미혼의 대학생들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과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기대 및 요구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Choi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과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를 상회하였다. 또한 향후 결혼 이후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경우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Kim & Sun, 2011). 이에 청년층의 미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자신감에도 가족친화제도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미혼남녀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등의 직장만족도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한 Kim과 Sun(2011)의 연구결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과 직장만족도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 후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자신의 직장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장관련 변인은 결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과 동시에 결

혼으로 인해 여성으로서 포기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결혼비용으로 결혼이행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사회적 변인, 직장관련 변인 등의 각각의 변인이 결혼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결혼지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관련 변인의 선택에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또는 취업여부 또는 정규직 여부 등의 직장관련 변인에 국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에서 결혼의향, 결혼지연과 관련변인의 분석결과가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심리사회적, 직장관련 변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에코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과 방안마련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III. 연구방법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분석한 2차 분석 연구이다.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2016) 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2001년생부터) 만 34세 이하(1982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청년용 부가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청년용 부가조사 응답자의 총 3,225명 중 미혼의 임금근로 취업 중인 에코세대로 한정하였다. 이에 현재 혼인상태에서 미혼이며,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 설문에서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유형 1과 유형 5를 판별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분석대상자는 1982~1992년에 출생한 에코세대 중 미혼의 임금근로 취업자 480명이다.

본 연구의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 남성(263명)이 여성(217명)보다 다소 많고, 평균 연령은 29세이며 30~34세(43.3%)가 가장 많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절반이상(56.7%) 중하집단이고, 상상 및 상하의 상집단은 2명(0.4%)에 불과하다. 한편 미혼 취업자 중 정규직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80			
Variables	Classification	N	%
Gender	Men	263	54.8
	Women	217	45.2
Age	24~26 years	118	24.6
	27~29 years	154	32.1
	30~34 years	208	43.3
	M(SD)	29.03	2.93
Socioeconomic Status	High-high	1	.2
	High-low	1	.2
	Medium-high	76	15.8
	Medium-low	272	56.7
	Low-high	118	24.6
	Low-low	12	2.5
	M(SD)	2.87	.72
Employment Status	Regular position	355	74.0
	Irregular position	125	26.0

3/4(74.0%)정도를 차지하고, 비정규직은 26.0%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개인용 자료에서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사회인구학적 변인)와 정규직 여부, 출산전후휴가 제공 여부, 육아휴직 제공 여부,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직장관련 변인),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에서 자존감, 사회적 지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심리사회적 변인), 청년활력지수 척도 중 연애 및 결혼 자신감, 출산 및 양육 자신감 문항을 활용하였다.

1) 독립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는 각각 폐쇄형의 단일 문항이다. 여기서 연령의 경우 24~26세, 27~29세, 30~34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가 1982~1992년으로 만 24~34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평균초혼연령은 2016년 남성은 32.8세, 여성은 30.1세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7). 30~34세 집단의 경우 평균초혼연령에 속하고, 27~29세는 평균적인 결혼 연령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결혼 및 출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을 질문한 문항으로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의 6점 척도이다.

심리사회적 변인인 부정적 자존감은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8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자존감의 신뢰도는 .820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평소 주변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변인이다.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11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는 .830이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 연대협동, 세대연대,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인식정도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850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직장관련 변인인 정규직 여부, 출산전후휴가 제공 여부, 육아휴직 제공 여부는 현재 직장에서의 상태를 질문하는 단일 폐쇄형의 문항이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 여부는 ‘제공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각각 32case, 33case는 결측값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직무만족도는 현재 직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 정도이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05를 보여 높은 신뢰수준을 나타냈다. 조직몰입도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몰입도를 의미하며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몰입도의 신뢰도 수준은 .892이었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은 자신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능력 및 가치 그리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한국노동패널』의 청년용 부가조사에서 설문한 각각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현재 원하는 연애 및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와 ‘귀하는 현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의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자신 없다(1점)부터 매우 자신 있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부정적 자존감은 평균 2.47점으로 보통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8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은 평균 3.02점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수준은 보통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도(평균 3.53점)와 조직몰입도(평균 3.37점)는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일자리보다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더 높다고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Category		M	SD
Psychosocial variable	Negative self-esteem	2.47	.56
	Social support	3.58	.45
	Youth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3.02	.61
Workplace related variable	Job satisfaction	3.53	.56
	Organizational commitment	3.37	.57
Dependent variable	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3.23	.81
	Confidence in childbirth and parenting	3.11	.88

할 수 있다. 한편 미혼의 취업한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평균 3.23점)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평균 3.11점)은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과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첫째,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심리사회적, 직장관련 변인에 따른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 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정적 자존감, 사회적 지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변인은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M±1SD를 실시하여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IV. 분석결과

1. 독립변인에 따른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차이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과 연령에 따

Table 3.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Category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M	SD	M	SD	
Gender	Men(263)	3.19	.85	3.13	.87
	Women(217)	3.27	.76	3.08	.90
	t	1.153		.571	
Age	24-26 years(118)	3.36	.70	3.19	.82
	27-29 years(154)	3.21	.85	3.11	.97
	30-34 years(208)	3.16	.83	3.06	.85
	F	2.269		.740	
Socioeconomic status	low(130)	3.04b ⁺	.76	2.95b	.88
	medium(272)	3.29a ⁺	.80	3.16ab	.86
	high(78)	3.32a ⁺	.93	3.21a	.96
	F	4.866 ^{**}		3.133 [*]	

* p<.05, ** p<.01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Differences of self-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by psychosocial variables

Category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M	SD	M	SD	
Negative self-esteem	Low(82)	3.76a ⁺	.69	3.49a	.85
	Medium(333)	3.16b ⁺	.75	3.06b	.84
	High(65)	2.88c ⁺	.93	2.86b	1.00
	F	27.394 ^{***}		10.961 ^{***}	
Social support	Low(98)	2.82c	.82	2.81c	.93
	Medium(314)	3.25b	.75	3.11b	.83
	High(68)	3.72a	.79	3.53a	.91
	F	28.226 ^{***}		14.181 ^{***}	
Youth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Low(81)	2.69c	.90	2.17c	.86
	Medium(339)	3.25b	.74	3.22b	.75
	High(60)	3.80a	.61	3.75a	.65
	F	38.017 ^{***}		86.560 ^{***}	

*** p<.001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상집단(3.32점)과 중집단(3.29점)의 연애 및 결혼 자신감 수준은 하집단(3.04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서는 상집단(3.21점)은 하집단(2.95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심리사회적 변인에 따른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차이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은 부정적 자존감이 가장 낮은 하집단(3.76점)에서 가장 높았고, 중집단(3.16점), 상집단(2.88점)의 순으로 낮았다(<Table 4> 참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상집단(3.72점)에서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이 가장 높고 중집단(3.25점), 하집단(2.82점)의 순으로 낮았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이 높은 상집단(3.80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집단(3.25점), 하집단(2.69점)의 순으로 낮아졌다.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서는 부정적 자존감이 가장 낮은 하집단(3.49점)은 상집단(2.86점)과 중집단(3.06점)보다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높은 상집단(3.53점)의 수준이 가장 높고

중집단(3.11점), 하집단(2.81점) 순으로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이 높은 상집단(3.75점)의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집단(3.22점), 하집단(2.17점)의 순으로 낮아졌다.

3) 직장관련 변인에 따른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차이

직장관련 변인 중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5> 참고).

또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집단의 경우 제공하지 않는 집단보다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직무만족도의 경우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 반면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일의 보람을 느끼거나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수준이 낮은 집단은 중간 이상의 집단에 비해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다. 또한 조직몰입도 수준이 높은 상집단의 연애

Table 5.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by workplace related variables

Category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M	SD	M	SD	
Employment status	Regular position(355)	3.29	.80	3.18	.87
	Irregular position(125)	3.04	.81	2.90	.91
	t	2.997**		3.151**	
Availability of maternity leave	Yes(182)	3.36	.78	3.24	.86
	No(266)	3.11	.81	2.99	.89
	t	3.262**		2.931**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Yes(181)	3.36	.77	3.27	.84
	No(266)	3.12	.81	3.00	.89
	t	3.168**		3.275**	
Job satisfaction	Low(48)	2.90b ⁺	.88	2.90	.99
	Medium(404)	3.25a ⁺	.79	3.13	.87
	High(28)	3.46a ⁺	.79	3.18	.90
	F	5.451**		1.586	
Organizational commitment	Low(45)	2.56c	.87	2.51c	.82
	Medium(308)	3.20b	.74	3.09b	.84
	High(127)	3.51a	.81	3.37a	.90
	F	25.913***		16.981***	

*** $p < .001$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집단, 하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고, 이 직장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거나 직장을 자랑할 수 있는 조직몰입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요인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 1.900~1.997로 그 수치가 .2에 근접하여 잔차항 간의 상관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가 .142~.914로 .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94~7.030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Table 6>과 같이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beta=.343$), 사회적 지지(β

$=.225$), 조직몰입도($\beta=.199$), 사회경제적 지위($\beta=.083$)가 연애 및 결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3.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결정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beta=.514$)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사회적 지지($\beta=.139$), 조직몰입도($\beta=.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3의 설명력은 39.5%를 보였다. 즉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은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은 사회적 지지, 조직몰입도로 나타난 유사점이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차이점이 있다.

Table 6. Determinants of confidence in courtship and marriage, in childbirth and parenting

Variable		Courtship and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B	β	B	β
Socio-demographic variable	Gender (Men)				
	Women	.002	.001	-.114	-.065
	Age	-.016	-.058	-.007	-.024
	Socioeconomic status	.095	.083 *	.068	.054
Psychosocial variable	Negative self-esteem	-.104	-.074	-.059	-.038
	Social support	.401	.225 ***	.271	.139 **
	Youth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447	.343 ***	.736	.514 ***
Workplace related variable	Regular position (Irregular position)				
	Regular position	.011	.006	.040	.020
	Maternity leave Yes(No)				
	Yes	-.102	-.063	-.003	-.002
	Parental leave Yes(No)				
Yes	.055	.034	.034	.019	
	Job satisfaction	-.118	-.081	-.138	-.086
	Organizational commitment	.283	.199 **	.207	.133 *
Constant		.360		-.137	
R ²		.337		.395	
F		19.581***		25.118***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6년에 수집한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자료 중 1982~1992년에 출생한 에코세대의 미혼 취업자 480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의 경우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연구(Choi et al., 2016; S. Lee, 2005)와 불일치하고 성별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Chin & Chung, 2010)와 일치한다. 또한 연령의 경우에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존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Chin & Chung, 2010; Koh & Aun, 2013)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에코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의 3포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성별 및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집단이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모두 가장 낮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과 결혼의향 간 정적 관련성이 있고,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결혼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결과(Chin & Chung, 2010; Choi et al., 2016; Kim, 2015)와 유사하다. 이는 에코세대가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7년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DUO, 2017), 평균결혼비용은 26,332만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한 명 당 대학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는 4억원으로 매우 높았다(NAVER News, 2017). 이와 같은 높은 결혼비용과 자녀 양육비용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겐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사

회경제적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에코세대의 심리정서적 변인에 따라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자존감이 낮은 집단,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 수준이 긍정적으로 높은 집단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더욱 높았다. 즉 에코세대의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높은 부정적 자존감은 미래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불안과 자신감 결여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결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점(Park, 2001; Park, 2015)에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에코세대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 수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층의 취업 불안정성과 한국사회에서 노력에 의한 성공기회에 대한 불신은 이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Choi & Park, 2017)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부정적 자존감, 사회적지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이들의 결혼 및 출산 등과 관련된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직장관련 변인 중 정규직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집단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나 사내 복지혜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자각하고(Lee & Kim, 2015), 비정규직의 고용조건과 고용관련 만족도, 직무여건(보수, 근로시간, 직장내 관계, 인사 공정성 등)이 이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Lee & Bae, 2008; Lee, Do, & Cho, 2017; Son, 2017) 같은 맥락에서 비정규직 집단의 미래 자신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집단이 제공하지 않는 집단보다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환경이 청년층의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조사결과(Choi et al., 2016)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중요성이 뒷받침되는 결과이다. 기본

적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기업 및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적요구사항에 해당하지만(Lee et al., 2017), 근로자의 입장에서 제도사용을 신청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해당 조직의 가족친화 직장문화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특히 남성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국의 기업 및 기관의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하집단은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의 수준도 낮았다. 이는 미혼 여성의 직무만족이 결혼의 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im & Sun, 2011)와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조직몰입도 수준이 가장 높은 상집단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수준이 가장 높았다. 즉 미혼남녀 에코세대의 일과 직장에 대한 만족감 변인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요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사회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 직장관련 변인인 조직몰입도로 나타났고,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는 심리사회적 변인인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 사회적 지지와 직장관련 변인인 조직몰입도가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유일하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연애 및 결혼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에서 상대방의 조건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결혼상대자가 서로의 원하는 사회경제적 스펙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부족한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고 지지해주면서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결혼의 참의미를 알리는 프로그램의 확산과 더불어 건전한 결혼 문화의 확산에 계속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수준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결정요인은 심리사회적 변인의 사회적 지지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사회적 지지, 청년인식, 자존감에 대한 교육 및 실행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Song & Park, 2017) 사회인식과 사회적 지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예코세대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예코세대의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Song과 Park(2017)은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 정도, 사회인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코세대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켜 준다면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의 긍정적 시각과 결혼 및 출산 등에 대한 자신감 수준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자녀세대의 성장과정에서부터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지지 지원의 구축,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협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자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양육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학급 내 또래친구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에는 조직상하간 수평적 소통과 전직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지지문화가 정착되어 조직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금수저, 흙수저로 비유되는 한국사회에서의 성공기회의 한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예코세대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처해진 조건이 취약하여 심리사회적 기능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Lee, 2008).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특별공급, 저리자금대출 및 임대주택 등의 주거정책을 계속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 공교육 기능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용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를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사회적 변인의 증진 교육과 더불어 예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에 대한 건강성을 높여야 한다. 결혼생활의 건강성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자신감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Lee(2013)는 예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Jun과 Oh(2010)는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교과에 요구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중·고등학교, 대학생 시절의 결혼준비관련 교과 및 프로그램

을 통해 전반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자신감 수준을 높이면 서 추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국가의 지원 체계 정보제공, 공동체 의식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프로그램, 적극적인 도전정신향상과 성공경험을 통한 성공기회의 확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기업은 개인과 가족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생활 설계와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 발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장관련 변인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변인이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지만, 조직몰입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가족친화제도의 실시는 근로자의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점에서(Bailyn, 1993; Rapoport et al., 200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변인은 조직몰입도 변인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의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는 기혼자뿐 아니라 미혼남녀의 향후 인생설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미혼의 예코세대가 더욱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 기간과 급여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예코세대의 큰 화두는 취업으로 연애 및 결혼의 지연과 기피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현시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고용정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코세대의 결혼 및 출산을 무조건 장려하기보다 이들의 취업 및 직장에 대한 안정적 고용환경조성 및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예코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 및 출산으로 단순히 연결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예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향상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 및 출산 등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가치 및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은 자녀 및 가족구성원에게 원만하고 조화로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Lee et al., 2017). 이는 이혼율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역할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예코세대의 미혼 취업자를 대상으로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결정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심리사회적, 직

장관련 변인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설문문항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설문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 분석 연구라는 한계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건강성 및 가족관계 등의 가족 관련 변인, 직장의 가족친화문화의 변인 등을 함께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 가족관련 변인, 직장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ailyn, L. (1993). *Breaking the mold: Women, men, and time in the new corporate world*. New York: Free Press.
- Barnett, R. C., Gareis, K. C., James, J. B., & Steele, J. (2003). Planning ahead: College seniors' concerns about career - marriage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2), 305 - 319.
- Casper, W. J., Weltman, D., & Kwesiga, E. (2007). Beyond family-friendly: The construct and measurement of singles-friendly work cult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3), 478 - 501.
- Chin, M., & Chung, H-E. (2010).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3), 31-51.
- Choi, H-M., Yoo, H-M., Kim, J. H., & Kim, T. W. (2016). The perceptions of young people towards non-marriag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rates. *Research Reports*, 2016-19.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Choi, S-E., & Park, M-J. (2017). Convergent effect of psychologic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echo generation: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201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83-295.
- Clark, M. A., Rudolph, C. W., Zhdanova, L., Michel, Je. S., & Baltes, B. B. (2017).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s and work - family outcomes: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Issues*, 38(11), 1520-1545.
- Dong-A Ilbo, 2012. 8. 3. 『Unemployment problem, marriage problem, housing problem... the echo boomers should be called oy vey(which means "Oh, woe is me") generation』.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120803/48301556/1>
- DUO. (2017). 『2017 wedding cost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duo.co.kr>.
- Eun, K. S. (2005). Transition from single to marriage. *Health & Welfare Forum*, 102, 25-35.
- Fischer, R. N. (2015). The savings behavior of baby boomers and echo boomers. *Undergraduate Economic Review*, 11(1), 1-19.
- Greenhaus, J., & Allen, T. D. (2011). *Work-family balance: A review and extension of the literature*. In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nd ed.). James C. Quick and Lois E. Tetrick,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65-183.
- Han, J.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lues and lifestyles between parents of the baby-boomer generation and children of the eco-boomer gen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 Im, M. R. (2013). *A study on the measure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based on the economic activity of eco boomer gen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Jun, M-K., & Oh, K-S. (2010). Education and application for low fertility age societ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95-116.
- Joo, Y-J., & Cho, S-Y. (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 job satisfaction, turnover rates, key competencies, organizational

- performance and sales in Korean compani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2), 57-85.
- Kim, H., & Li, J. M. (2015). A comparative study of women friendly workplace: Focused on Korea, China and Japan. *The Journal Eurasian Studies*, 12(3), 1-32.
- Kim, H., & Sun, B. Y. (2011). Women's late marriage and marriage intention. *Korean Society*, 12(2), 3-35.
- Kim, J. B. (2013). The study of moderating effects upo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Social Science Research*, 39(1), 1-24.
- Kim, J. K., Baek, H. J., Lim, H. J., & Lee, K. O. (2010). *The 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I*. Project Report 10-R0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J. S. (2006).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1), 57-70.
- Kim, S-H. (2009).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level of involvement in recreational activities and emotional expression and confidence for recreation.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3(2), 135-144.
- Kim, S-J. (2015). Why have marriages been delayed?.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38(4), 57-81.
- Kim, Y. M., & Ryu, Y. K.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male gender role attitudes across 26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2(2), 271-299.
- Kirrane, M., & Monks, K. (2008). Attitudes towards managing the work-family interface: The role of gender and social background. *Irish Journal of Applied Social Studies*, 8(1), 70-89.
- Ko, N-K. (2017) Financial status of baby boomers and eco-generation. Proceedings of the 2017 Korean Academy of Financial Consumers Conference.(pp.1-42)
- Koh, S-K., & Auh, S. Y. (2013). An effect of the financial resources on the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never married in their 30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1), 63-79.
- Koropecj-Cox, T., Copur, Z., Romano, V., & Cody-Rydzewski, S. (2015).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s and childless or childfree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2015, 1-15.
- Lee, H-J. (2015).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generation and echo boomer generation*. Unpublished ma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I. S., & Bae, H. S. (2008). The effect of the working conditions on quality of lif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2), 53-80.
- Lee, J-G., & Lee, S. H. (2015).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university curricula on 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co-boomers.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47(47), 203-230.
- Lee, J-H., & Kim, M-H. (2015). The effects of perceived inequality on the mental health of nonstandard workers: The case of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21(3), 147-180.
- Lee, J. Y., Chung, L. J., Jang, Y. D., & Ju, Y. H. (2015). The effect of mobile-phone dependency on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Youth Welfare*, 17(3), 1-25.
- Lee, S. H. (2013). A causal model analysis of the family health of baby boomer parents and the of eco-boomer children: Focusing on college-aged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5(4), 99-111.
- Lee, S. J. (2005). Determinants of marriage selection: 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5(1), 131-156.
- Lee, S. J., Shin, H. J., & Lee, J. H. (2014). The relationships of academic self-confidenc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o academic achievement and internet addiction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349-374.
- Lee, S. M. (2008). Testing social stress models of lower income group.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3), 119-152.

- Lee, S-R., Do, Y-H., & Cho, E-M. (2017). Health status difference between permanent workers & temporary workers and job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factor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1(1), 141-165
- Lee, S-S. (2005).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 95-138.
- Lee, Y. R., & Kim, O. J. (2012). A study on college students recognitions, needs and expectations on family-friendly policy.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Studies*, 30, 1-26.
- Lee, Y. R., Lee, S. H., Park, E. J., & Lee, Y. M (2017). *Marriage and family life*. Seoul: Sigmappress.
- Lim, A. N., & Jeong, Y. O. (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women-friendly policies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sian Women*, 54(2), 71-104.
- Lim, M-H. (2017).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75-84.
- Moon, S. H. (2012). Effects of marriage and family values on the marriage intention and expected marriage age of unmarried young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3), 5-25.
- Na, A-S. (2014). The effects of leisure attitudes on self-management and confidence in university dance major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8(3), 89-100.
- NAVER News, 2017. 3. 8. 「Raising one child from birth to college costs 400 million won」.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428007>
- Park, J-H. (2015).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9(4), 71-94.
- Park, J. Y. (2009). The effect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0), 249-272.
- Park, N-H. (2016). *In relation to adult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married men and women: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seeking*. Unpublished ma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 Park, S-H. (2001). *The study of the correlation among the married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self-esteem,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communication*. Unpublished ma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Ra, C. K., & Lee, H. K. (2013). Employment transitions and suicide ideation among echo generatio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3(4), 369-375.
- Rapoport, R., Bailyn, L, Fletcher, J. K., & Pruitt, B. H. (2002). *Beyond work-family balance: Advancing gender equity and workplace performance*. Jossey-Bass.
- Shin, M., Jeon, S. H., & Yoo, M. S. (2012).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1), 81-92.
- Sohn, S-Y. (2017). The effect of regular and temporary employmen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9(4), 171-182.
- Son, J. (2015). *Trajectories of the change and the predictors on psychosocial function for the echo boomers gener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Son, J-M. (2017). Job stress trajectories of the eco-boomer generation in the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05-409.
- Song, H-J., & Park, M-J. (2017). The convergent influence of social awareness and health status on social support in Korean echo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247-256.
- Statistics Korea. (2012). *An analysis of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s and the echo boomer generation: Focusing on the 2010 Population*

- and Housing Census.*
Statistics Korea. (2015). *2015 Korean Social Trends.*
Statistics Korea. (2016a). *2016 Work and Family Balance Indicators.*
Statistics Korea. (2016b). *2016 Korean Social Trends.*
Statistics Korea. (2017). *2016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Tan-Wilson, A., & Nancy, S. (2015). College students' views of work - life balance in STEM research careers: Addressing negative preconceptions. *CBE-Life Sciences Education, 14*(3), 1-13.
Wong, Chack-Kie, Tang, Kwong-Leung, & Ye, S. (2011). The perceived importance of family-friendly policies to childbirth decision among Hong Kong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4), 381-392.
Yang, J. K. (1999). *The effects of self-confidence, price, and store on consumer's evaluations of quality and purchase intentions.* Unpublished ma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Yu, E-Y. (2009). Self-esteem and stress-coping strategies of the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6), 225-236.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자료 중 1982~1992년에 출생한 에코세대의 미혼취업자를 대상으로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에코세대의 사회인구학적, 심리사회적, 직장관련 변인에 따른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사회적 변인에 따라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만족도에 따른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직장관련 변인에 따라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은 사회적 지지, 조직몰입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10월 10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1월 30일